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27

열두 명의

정탐꾼

(민수기 13장)



이동하다, 잠시 머물렀다, 이동하다, 잠시
머물렀다를 수차례 반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이란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정말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니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도록 하거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열두 아들로부터 출발하여 모두 열두 지파로
구성돼 있었어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지파’로 열두 지파에 속하지 않았지만
대신 요셉의 후손들이 두 지파로 나뉘어서
모두 열두 지파가 된 거죠.

모세는 각 지파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한 명씩!
모두 열두 명의 정탐꾼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오거라.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흙이
얼마나 비옥하며 나무는 잘 자라는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
마을에 높은 성벽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험하게 트인 들판 같은 곳인지.
한 마디로 샅샅이 조사해서
모든 걸 자세하게 알아오거라.”**

**정탐꾼들은 열심히
가나안 땅을 돌아다녔어요.**

큰 도시며 작은 마을이며 구석구석
살펴보았죠.

역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 잡기에 손색이 없었어요!
이전에 보았던 어떤 도시보다 아름다웠고
온갖 먹을 것들이 풍성했죠.

한 사람이 말했어요.

“이야~ 여기 있으면 고기며 채소며
과일이며 굶주릴 일은 없겠구만.”

**“자, 모세님께서 이 땅에서 난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셨으니
어디 한 번 열매를 따보도록 합시다.”**

**이때는 첫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어서
나무에는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어요.
마침 정탐꾼들 앞에는 커다란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정탐꾼들은 커다란 나무로 장대를 만들어서
그 장대에 커다란 포도송이를 꿰어 운반했어요.**

**먹음직스러운 석류와 무화과도 땀쥔.
그렇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이나 둘러본 끝에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머, 세상에! 이게 포도야 거봉이야?
이렇게 큰 포도 열매는 태어나서 처음 봐요!”**

**“열매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걸 보니
무척 기름진 땅임에 틀림없구먼. 허허허!”**

**정탐꾼들이 가져온 과일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정탐꾼들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보시다시피, 그 땅은 온갖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저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물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던가?”**

**그런데, 갑자기 열두 명의 정탐꾼 중
열 명의 얼굴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이 우물쭈물 말했죠.

**“그, 그제... 말이죠.
저희가 보기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큰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게 어찌나 견고하던지
우리는 아마 상대도 안 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기뻐하던
백성들이 순식간에 침울해졌어요.
기대감과 설렘은 실망과 두려움으로
바뀌고 말았죠.

그런데, 정탐꾼 중 나머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각이 달랐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여호수아는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따라갔던 충직한 사람이었죠.

갈렙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닌가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나안땅을 차지하러 가야 합니다!”**

갈렙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졌어요.

**똑같이 정탐하러 갔는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깐요.**

**그때 나머지 열 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오!
모세님, 백성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선불리 덤뵈었다간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거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은
키도 아주아주 컸습니다! 거인들이었다고요!
어찌나 거대한 사람들이었던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한낱 메뚜기떼처럼 보일 겁니다!
아주 아주 찌그만 메뚜기들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누구의 말을 믿었을 것 같나요?**

사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성벽이 얼마나 높고 굳건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쉽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죠.

그 모습을 본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쉽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죠.

그 모습을 본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